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0)(11/15/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 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진리로 살아감, 1-2 절

창 17:1 -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 8:32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6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1. <그리스도>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진리로 행하고, 늘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창 17:1). 내 앞에서 진리로 행하는 사람은 “거짓”의 공격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할 것이고, 진리가 그를 미혹하거나 비방하는 악인들로부터 지켜줄 것이다(요 8:32).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고(요 8:36), 사람들의 헛된 말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2. <제자> 주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되오니,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주의 진리로 모든 악하고 무절제한 정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지극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 14:17 -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요 8:32 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다.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알라는 것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8:31 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결국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이 때의 자유란 무엇인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멸망의 길에서 건짐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자유의 역사이다. 진리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로부터의 자유, 영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두려움과 미움 등등 우리의 존재를 괴롭히는 수많은 영적 사슬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는 언제나 속임과 사기를 일삼는다. 최악된 인간은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이다. 최악된 인간은 자신의 최악, 거짓, 속이는 속성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진리의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그리고 자유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도 없을 뿐더러 속이고 감추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의 복을 보장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자유하며, 어떤 가식과 위선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향하여 그저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포용의 마음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진정한 영적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진솔함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자. 진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자.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진리되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2. 아직도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